

**한**방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원기(元氣)가 허해졌는지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겠으니 보약이나 한 제 지어 먹어봐야겠다”며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분들은 보약(補藥)을 짓는다며 약제 시장에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을 사서 달여먹고 기력을 좀 회복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십전대보탕, 개소주를 사먹고 소화도 안되고, 혈압이 올라갔으니 어찌된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부 정기(正氣)의 부족을 의미하는 허(虛)와 사기(邪氣)의 침입을 의미하는 실(實)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의해 질병 현상이 나타나다고 보기 때문에 한약과 침·뜸의 보(補)하는 작용과 사(瀉)하는 작용을 통해 허실(虛實)을 조정하면 질병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본다.

보약이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기(正氣)가 부족해서 오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이는 단순

한 피로, 무기력, 정력감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위장병 등 각종 질환에서 허증(虛證)의 양상이 나타날 경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사약(瀉藥)이란 인체 내에 사기가 침입하거나 울체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치료약으로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서 땀을 내주어 사기를 밖으로 몰아내거나 염증으로 인한 고열을 차가운 성질로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 약이 이에 해당된다.

보약을 먹고 싶다고 찾아오는 만성피로 환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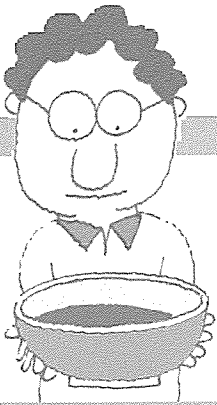
에도 간장에 울체된 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장열을 제거하는 사약을 써야하며, 만일 보약을 원한다고 십전대보탕류의 보약을 함부로 복용할 경우 피로가 더 심해지고 두통, 눈충혈,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보약이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의 한 영역으로 오장육부 중 어느 장부의 기능이 허한지 실한지, 또 허하다면 기(氣)와 혈(血) 중 어느 요소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비로소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약의 처방이 일반인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당히 복잡한- 진단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약은 장부(臟腑)에 정기허쇠(正氣虛衰)의 병변이 있을 때 사용되는 치료약임이 분명하므로 질병이 없는 건강인의 보약 남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보약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써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장육부의 허실을 찾아내어 사용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이 된다.

기본적으로 약이란 하루 세끼 꼬박 꼬박 먹는 곡식과 달라서, 곡식은 그 성질이 순하고 담담한 반면 약은 그 성질이 지나치게 차거나 지나치게 뜨거운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으므로 모두 독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약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병이 없는 사람의 습관적인 복용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

한의학 고전에서도 일반인이 보약 먹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결국에는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이 자주 강조되는데,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고 정력이 증진됨을 꾀하여 오장육부의 허실을 판단하지 않고 더운 성질의 보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결국 장부의 기능을 상하게 됨을 지적한 것이다.

사상의학 창시자인 동무 이재마 선생은 그의 저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대개 병이 있는 사람은 약을 쓸 것이나 병이 없는 사람은 약을 쓰지 않을 것이며 중(重)한 병에는 중(重)한 약을 쓰고 경(輕)한 병에는 중(重)한 약을 쓰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약 경한 병에 중한 약을 쓰기를 좋아하거나 또는 병이 없는 사람이



약 쓰기를 좋아한다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약해져서 병이 생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여 약의 남용, 오용을 경계하였다.

원기부족, 만성 피로는 실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별다른 병도 없는데 항시 심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고통을 호소하던 어느 40대 남자 환자 분은 자세한 문진(問診)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매우 예민한 성격으로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조금해져서 마음이 항시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직장 문제로 부담을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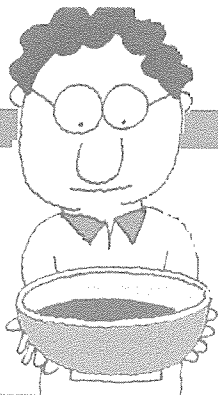
느끼며 오래 전부터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앓음을 알게 되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달리는 동안보다도 출발 직전의 긴장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한다.

항시 긴장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피로가 누적되고 수면을 통한 피로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원기가 충만할 수 없음은 의사가 아니라도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할 수 있겠으나 자기 자신만 그 명백한 원인을 모르고 보약을 먹고 원기를 보충하겠다고 내원한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심장(心臟)의 혈(血)을 보해 줄 수 있는 귀비탕(歸脾湯) 가감방을 복용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원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항시 괴롭히던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좋아한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수척한 모습으로 내원한 30대 부인이 심한 무력증을 호소했다. 처녀 때부터 몸이 냉하고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으로 수 년 전부터는 백화점에 쇼핑만 갔다 와도 힘이 들어 눕고



아무런 질병이나 혹은 병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진단없이 무분별하게 보약류를  
복용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다

싫고 누우면 마치 몸이 방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평소 입맛  
이 없어서 음식량이 적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여 음식이 내려가  
지 않는 듯하다고 한다. 이처럼  
소화가 안된 것은 이미 10년  
도 더 된 것 같고 이제는  
오래히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한다.

배에서 꾸룩꾸루  
룩 하는 물소리가 들  
리고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이 잦다. 항상 추위를  
타고 힘이 없으니 움직이  
는 것이 싫고 게을러진다  
고 한다.

또, 조금만 무리하거나 과로하면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낀다고 한다.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수 차례  
받았으나 신경성 위염이다. 위기  
능이 약하나 별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한다.

이 환자의 문제는 음식물을 섭취,  
소화하는 위(胃)와 소화시킨 음식  
물의 정미(精微)로운 기운을 흡수  
해서 전신으로 수포(輸布), 공급하  
는 비장(脾臟)의 기운이 약해서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람이 기운을 얻는 것은 호흡을  
통해 하늘의 기운인 천기(天氣)를  
흡입(吸入)하고, 음식물의 소화, 흡  
수를 통해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



를 섭취하여 이 두 가지 기운이 함  
께 인체의 원기를 끊임없이 지양(滋  
養)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비위(脾胃)의 기능이 약  
하여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기가 충  
만(充滿)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처럼 검사상  
아무런 기질적 병변을 발견할 수  
없는 소화기계통의 증상을 묶어 기  
능성 위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으  
나 소화성 궤양 등 다른 기질적 질  
병에 비해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무기력 등 전신증상과 위장  
기능의 허약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장  
기능의 개선을 통해 소화기능  
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전신 무  
력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이 부인의 경우는 위기하  
함(胃氣下陷)이라는 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 황기, 인  
삼(人蔘) 등을 위주로 하는  
가미보중익기탕(加味補中  
益氣湯)과 반하(半夏), 인  
삼(人蔘), 백출(白朮), 천마  
(天麻) 등을 위주로 하는 가  
미반하백출천마탕(加味半夏  
白朮天麻湯)을 수개월간 복용  
하여 모든 증상이 개선된 사례이다.

보약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써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정확한 진  
단을 통해 오장육부의 허실을 찾아  
내어 사용하면 보약은 환자의 원기  
를 복돋워 주고 고통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유효  
한 치료법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  
이, 혹은 병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보약류를 복  
용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㉞